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모델 개발 방안 연구 -경북형 콘텐츠 펀드를 중심으로-

성종현

안동대학교 미디어문화커뮤니케이션학과

Research on fund model development plan to revitalize content industry -Focusing on Gyeongbuk style content fund-

Jong-Hyun Sung

Dept. of Media Culture and Communica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 내 콘텐츠 산업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경북의 특성과 다른 지자체 펀드 구조 및 자금 조달 사례분석 시사점을 바탕으로 경북형 콘텐츠 펀드 조성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콘텐츠 시장 현황과 경북 내 콘텐츠 산업을 분석하고 국내 관련 클러스터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후 경북형 콘텐츠 펀드 모델의 기본구상과 기능, 개발 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첫째, 경북형 콘텐츠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지역형 콘텐츠 장르의 기업을 분류하여야 한다. 둘째, 경북 내 초기 콘텐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고 자생을 위한 모펀드 설립이 필요하다. 셋째, 경북의 관련 근거법에 따라 경북 실정에 맞는 콘텐츠 펀드 모델을 도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국내 사례로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나, 제시한 경북형 콘텐츠 펀드 조성 방안은 지역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콘텐츠 펀드의 운용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며, 향후 콘텐츠 펀드의 확대와 다양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plan to develop a Gyeongbuk-type content fun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Gyeongbuk derived from an analysis of the content industry in Gyeongsangbuk-do and the implications of analyzing other local government fund structures and financing cases. To this end, the statuses of the content market and the content industry in Gyeongbuk were analyzed, and cases of domestic-related clusters were evaluated. The implications of the basic concept, function, and development plan of the Gyeongbuk-type content fund model were derived, and a development plan was proposed. As a result, the scope of companies that the Gyeongbuk-type content fund can invest in must be defined, and companies in the regional content genre should be classifi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arent fund for self-reliance with the primary purpose of investing in early-stage content companies in Gyeongbuk. Third, a content fund model that fits the circumstances of Gyeongbuk must be deriv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of Gyeongbuk. Although there were limitations in generalizing the domestic cases analyzed in this study, the proposed Gyeongbuk-type content fund development plan can help revitalize and grow the local content industry. In addition, continuous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operation and performance of content funds is necessary, but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to expand and diversify content funds in the future.

Keywords : Content Industry, Content Fund, Fund Model, Content Market, Gyeongsangbuk-do

*Corresponding Author : Jong-Hyun Sung(Department of Media Culture and Communica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email: sjh@anu.ac.kr

Received January 9, 2024

Revised February 14, 2024

Accepted March 8, 2024

Published March 31, 2024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콘텐츠 산업은 문화와 경제의 결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한류의 흐름이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K팝, K드라마, K푸드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1]. 이러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따라 국내 콘텐츠 산업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 내 콘텐츠 기업은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효과, 지역 경제 기여 등 공익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적인 예산으로 콘텐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콘텐츠 펀드는 민간 투자자의 자금과 정부 재원을 결합하여 높은 승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7천억 원의 콘텐츠 기금을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들도 자체적인 콘텐츠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2]. 큰 폭으로 성장 중인 국내·외 콘텐츠 산업의 흐름에 발맞춰 경상북도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 내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는 콘텐츠 산업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지역 콘텐츠 기업들은 경영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 및 운용이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63.3%)[3]으로 남아 있다. 기존 모태펀드 투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치중됨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업을 위한 펀드 운용 정책의 갈증이 있으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펀드를 운용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수도권에 90% 이상의 창업자금 관련 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3], 경북 또한 이러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내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북형 콘텐츠 펀드를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 내 콘텐츠 산업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경북의 특성과 다른 지자체 펀드 구조 및 자금 조달 사례분석 시사점을 바탕으로 경북형 콘텐츠 펀드 조성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외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문헌들을 조사하고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등의 데이터와 웹스크래핑으로 경북의 콘텐츠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지자체 펀드 사례의 비교연구를 위하여 대표 펀드 사례의 문헌조사와 데이터 수집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북형 콘텐츠 펀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펀드 모델 개발 방안을 도출하는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콘텐츠 시장 현황과 경북 내 콘텐츠 산업을 분석하고, 둘째, 국내 지역 콘텐츠 펀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셋째, 경북형 콘텐츠 펀드 모델의 기본구상과 기능, 개발 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콘텐츠 시장과 경북 콘텐츠 산업 현황

2021년 글로벌 콘텐츠 시장은 전년 대비 11.2% 성장한 2조 5,138억 달러 규모로 집계[4]되었으며, PWC(Price Waterhouse Coopers)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글로벌 콘텐츠 시장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의 언택트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소비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팬데믹 당시에는 콘텐츠 시장이 침체에 빠졌지만,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영상 스트리밍 시장이 확대되고 모바일 게임과 디지털 만화 등의 콘텐츠 시장이 성장했다[4].

국내 콘텐츠 산업 환경을 살펴보면 콘텐츠 산업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한 2021년 연간 추정치 산출 결과, 전체 콘텐츠 산업의 매출은 136조 3,5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였다[5]. 국내 콘텐츠 산업은 정부 주도로 K-콘텐츠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국내 성장의 중요한 돌파구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글로벌 수요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5]하고 있다.

한편 16개 광역지자체별 콘텐츠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콘텐츠 사업체 수가 2,378개로 가장 많고 부산시 445개(8.5%), 대구시 299개(5.7%), 대전시 294개(5.6%) 등의 순[6]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2021년 기준 콘텐츠 사업체 수가 211개, 콘

텐츠 분야 종사자 수가 1,915명, 콘텐츠 분야 전체 매출액이 1,660억 원으로 수도권에 비해 영세한 실정이다. 경북 창작자의 FGI 결과, 홍보가 부족하고 이용자가 없으며 콘텐츠 산업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콘텐츠 관련 기관이 안동에 있어 이동하기 힘들며 인프라나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조사[8]되었다. 그러나 경북 지역 콘텐츠 사업체의 향후 경영 현황 및 전망 설문 결과 음악, 애니메이션 분야를 긍정적으로 전망[8]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콘텐츠 유망분야를 특화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수행하고 유망한 기업을 찾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결국 이상의 콘텐츠 산업 현황을 종합할 때 콘텐츠 산업은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에 속한다. 또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영상, 게임, 만화 등 콘텐츠 산업의 융합 현상은 산업간 경계약화, 기술의 발달, 고객수요의 다양화 등의 요인에 따라 빠르게 확산세를 보이며 이는 장기적인 사회현상[9]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국내 콘텐츠 산업은 K-콘텐츠 산업과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국가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경북의 콘텐츠 산업은 아직 영세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북형 콘텐츠 펀드 모델을 통해 지역 내 콘텐츠를 개발하는 유망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지역 콘텐츠 펀드 사례 분석

지역 콘텐츠 펀드의 조성안을 제안하기 위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 가지 펀드 사례를 분석하였다. 선정된 펀드 사례는 서울 미래혁신 성장 펀드, 부산 지역 혁신벤처 펀드, 경남 청년 임팩트 투자펀드(경남 하모펀드)이며, Table 1과 같다.

Table 1. List of Representative Cases of Local Government Funds in Korea

Location	Facility name
Seoul	Seoul Innovation Growth Fund
Busan	Busan Regional Innovation Venture Fund
Gyeongsangnam-do	Gyeongnam Youth Impact Investment Fund (HAMO Fund)

세 가지 펀드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한 이유는 모두 지

역형 콘텐츠 펀드의 일종으로 지역의 특성과 산업전략에 맞추어 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이며 각각 혁신성장, 지역 혁신, 임팩트투자라는 다른 목표와 방식을 가지고 운영한 사례로 다양성과 유연성을 고루 살펴볼 수 있으며, 모델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 서울 미래 혁신성장 펀드

서울 미래 혁신성장 펀드의 규모, 주체, 자금출처, 주목적투자, 특이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 Table 2와 같다.

Table 2. Seoul Future Innovation Growth Fund Analysis

Category	Content
Scale	Amount raised: 4.2 trillion won, Investment amount: 220 billion won
Investment Management	Seoul Industry Promotion Agency
Funding	Seoul Small and Medium Business Development Fund, Seoul Business Agency
Primary Investment	Smart city, Startup, Bio, Content, etc.
Singularity	- Utilize the small business development fund as a financial resource. - Set a budget every year and provide support to companies.

서울 미래 혁신성장 펀드를 운영하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펀드 운영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초기 단계에서 엔젤투자(Angel Investment)[10]와 씨리즈 A(series A) 사이의 씨리즈 A 이전(Pre-series A) 영역을 새롭게 정의하여 이 구간에서 움직이지 않고 6년간 투자하였으며, 점차 수익률이 나는 구간으로 조금씩 투자를 확대해 나갔다. 이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펀드가 적극적으로 투자되면서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 대상 기업의 성장과 함께 펀드의 수익률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둘째, 자체적인 액셀러레이팅[11] 시스템(Accelerating System)과 딜 소싱(Deal Sourcing)[12]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 딜 소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미 내부 시스템에 의하여 검증된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는 펀드가 단순히 투자자의 역할만 하지 않고, 투자 대상 기업의 성장을 돕는 멘토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였다. 셋째, 펀드 운영과정상의 어려움은 투자 업무 진행 시 초기과정에서 사람

들과의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는 펀드가 새롭게 개척한 시장 영역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 기업을 찾기 위해 다양한 채널과 인적 관계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3.2 부산 지역 혁신 벤처 펀드

부산 지역 혁신 벤처 펀드의 규모, 주제, 자금출자, 주 목적투자, 특이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 Table 3과 같다.

Table 3. Analysis of Busan Regional Innovation Venture Fund

Category	Content
Scale	Amount raised: KRW 120 billion, Investment amount (450 from the mother, 150 from the city, 300 from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Investment Management	Korea Venture Investment
Funding	Busan City, Korea Venture Investment,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Primary Investment	Seven major strategic industrial companies in Busan (Smart Marine, Intelligent Machines, Future Transportation Devices, Global Tourism, Intelligent Information Services, Life Care, Clean Tech)
Singularity	- As Hanbentu was selected as the investment management entity, customized management for each region is not possible. - The main investment of Busan area companies is 30%. - There is a problem of reinvestment recovery depending on the type of government support (equity: 20% local, 80% government)

부산 지역 혁신 벤처 펀드를 운영하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펀드운영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펀드 결성 시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모펀드의 설립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하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부산시가 아닌 한국벤처투자가 투자관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고유한 이슈나 맞춤형 투자는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한국벤처투자의 지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투자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지역기업육성에 제약을 가져왔다. 둘째, 펀드운영 기관 또한 지역 주체가 아닌 포스코 기술금융이 선정되었으며, 해당 기업은 부산에 전혀 연고가 없는 기업이다. 이는 펀드가 지역 내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내 콘텐츠 산업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셋째, 펀드운영 과정상의 어려움은 딜 소싱의 문제가 가장 컸다.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찾기 위해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부산 지역 내 콘텐츠 산업의 규모와 활동이 제한적이어서 투자 대상 기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웠다.

3.3 경남 청년 임팩트투자 펀드(경남 하모펀드)

경남 청년 임팩트 투자펀드(경남 하모펀드)의 규모, 주제, 자금출자, 주 목적투자, 특이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 Table 4와 같다.

Table 4. Analysis of Gyeongnam Youth Impact Investment Fund (Homo Fund)

Category	Content
Scale	Amount raised: KRW 2.2 billion
Investment Management	Gyeongnam Creative Economy Innovation Center, MY Social Company Co., Ltd.
Funding	Geoje Marine Tourism Development Corporation, Tongyeong Tourism Development Corporation, Korea Social Values Solidarity Fund, Gyeongnam Bank, NH Nonghyup Bank
Primary Investment	Young creators in the province based on social values (local creators) and social value-based start-ups (social ventures)
Singularity	- The first fund with LP investment institutions and investment destinations in Gyeongnam. - Donation investment by Korea Aerospace Industries and LH. - Geoje-si and Tongyeong-si invest in tourism organization - Gyeongsangnam-do budget is not included.

경남 청년 임팩트 투자펀드(하모펀드)는 투자(Impact Investment)[13]의 특성상, 소셜 벤처(Social Venture)[13]와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에게 투자하기 때문에 20억원 내외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펀드이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펀드운영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펀드 결성 시 모태펀드를 신청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빠른 펀드 결성을 위하여 생략하였으며, 국비 지원이 없었기에 의회 설득 과정 또한 없었다. 이는 펀드가 지역의 특성과 산업전략에 부합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 지역 주체가 직접 펀드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둘째, 펀드운영 기관을 경상남도가 직접 맡았으며, 펀드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이사 결정을 하였다. 이는 지역 내 콘텐츠 산업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면서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셋째, 펀드운영 과정상의 어려움은 거제시와 통영시가 각각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와 통영관광개발공사를 통하여 출자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길어지면서 펀드결성이 지연되었고, LH은행의 투자에 대한 검토 절차가 필요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상남, 거제시, 통영시는 협력을 통해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였다. 넷째,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찾기 위해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임팩트 투자의 특성상,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웠다.

4. 경북형 콘텐츠 펀드 조성방안

4.1 지역 콘텐츠 펀드 사례 분석 결과

결국 세 지역의 콘텐츠 펀드 사례의 분석 결과는 첫째, 지역 내에서는 초기 시스템 설계자가 중요하다. 지역형 펀드의 경우, 지역 출자액의 n 배수는 지역 내 투자자 원칙이지만 투자할 만한 주목적 투자처가 수도권에 비해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딜 소싱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중심 주목적 투자, 지역 맞춤형 투자 운용, 지역 내 VC 육성, 지역 순환형 투자 회수를 위해서는 자생적인 모펀드 설립이 바람직하다. 셋째, 소프트웨

어적인 시각에서의 시스템을 뜻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으며, 지역 콘텐츠 진흥기관과의 연계를 고려한 공공 VC 모델을 검토해 볼 수 있다.

4.2 경북형 콘텐츠 펀드의 기본구상과 기능

경북형 콘텐츠 펀드의 기본구상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경북형 콘텐츠 펀드를 조성함에 있어,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시장 규모의 영세함이다.

이에 경북형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요인은 투자 가능한 기업 모수의 확대이다.

콘텐츠 산업진흥법에 기반한 콘텐츠 산업 특수분류 체계에 속하는 콘텐츠 산업은 음악, 게임, 모바일, 방송, 영상, 애니메이션, 만화, 출판, 캐릭터가 이에 해당한다[14].

그러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 확대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산업으로 콘텐츠 산업의 영역이 아래 Fig. 1과 같은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많은 선행 연구들이 디지털 콘텐츠의 영역을 정의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新디지털 콘텐츠 산업 영역을 도식화하면 콘텐츠에 대한 정의를 광의의 영역으로 확대할수록 넓은 범위의 기업들이 콘텐츠 기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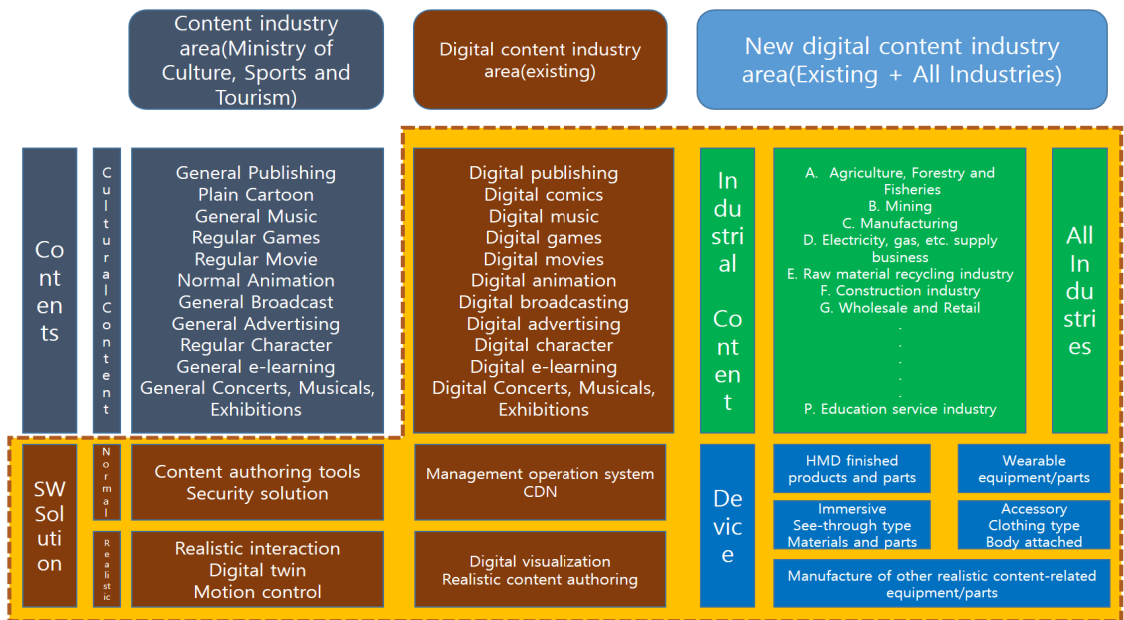


Fig. 1. Expansion of content industry area[16].

편입될 수 있다. 경북형 콘텐츠 펀드는 기존 콘텐츠 기업의 범위에서 확장되어 ICT와 결합된 기술집약형 콘텐츠(Contents-Platform-Network-Device[15])산업과 지역형 특산물 가공 라이선싱(Licensing)을 통한 콘텐츠 장르에 대한 기업도 포함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경북형 콘텐츠 펀드가 필요하다. 경북 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조성되는 정책 펀드인 만큼 펀드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나, 펀드의 지속성을 위해 수익성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북 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초기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민간 자금과의 매칭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대표적 정책 펀드인 한국모태펀드의 영상·공연·음반산업 수익률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자체 콘텐츠 펀드 지속성과 자생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모펀드 설립을 추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운용가능한 VC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관련 근거법을 확인하여 경북 실정에 맞는 콘텐츠 펀드 유형을 도출해야 한다. 경상북도의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법')은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해당자에게 위탁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2016년 1월에 개정되어 지역개발기금만 위탁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 등과 제5조 기금의 용도 등 일부 조례 개정을 통해 콘텐츠 진흥기관과 연계를 통한 공공 VC 모델을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벤처투자를 활용하는 방안과 신규 투자관리회사를 통해 경북형 콘텐츠 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방안으로 크게 두가지 형태의 경북형 콘텐츠 펀드 조성 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위의 방안을 고려한 경북형 콘텐츠 펀드 조성안은 아래 Fig. 2와 같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펀드의 투자 관리 주체는 크게 한국벤처투자자 개별 투자관리기관 설정에 따른 독립적 운영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벤처투자의 지역 혁신 벤처 펀드를 활용해 공동출자하는 방식은 경북도가 한국벤처투자자와 협의를 통해 펀드 조성 목표액을 설정하고, 각 출자액 규모를 산정한

뒤 매년 협의된 금액만큼 경북도의 예산(일반회계)을 한국벤처투자자로 지출하는 형태이며, 해당 방안의 주요 관리는 한국벤처투자자가 수행하게 된다.

한국벤처투자자가 아닌 독립적인 형태의 투자 관리주체를 신설하거나 지정하는 방안은 다시 상세 투자 관리주체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민간 운용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투자 관리주체를 지정 혹은 위탁하는 형태이며, 또 다른 형태로는 도내에 투자관리기관을 신설하거나 지정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 운용사를 활용하는 방안에는 뉴딜펀드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민간 운용사를 활용하는 방안의 경우, 출자의 방법과 형태는 동일 하나 그 대상이 한국벤처투자자가 아닌 한국성장금융으로 바뀐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투자관리기관은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한 민간 운용사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도내에 투자관리기관을 신설하거나 혹은 별도로 지정하는 사례의 대표적인 형태에는 그 규모와 관련 근거법에 따라 대규모와 소규모의 단독펀드 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규모의 단독펀드 조성은 입법 등의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경남의 임팩트 투자펀드의 경우 벤처투자 촉진법에 의거한 투자조합 형태라 결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남 사례와 동일한 펀드를 조성할 경우, 경북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매년 동일한 규모로 펀드에 납입하는 형태로 출자가 가능하며,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경상북도의 콘텐츠 진흥기관이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북형 콘텐츠 펀드를 조성함에 있어 Fig. 2와 같은 유형중 하나를 선택하여 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 펀드 조성 단계에서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형태와 구성으로 펀드를 조성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 콘텐츠 펀드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다음 시사점에 주목하여 콘텐츠 펀드 조성안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역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형 맞춤형 투자 VC를 육성하고 지역 순환형 투자회수를 위해 경북의 콘텐츠 진흥기관과 연계한 모펀드 설립을 가장 충족하는 경북형 콘텐츠 펀드 조성 방안은 경남 사례와 같이 20억 원대의 자펀드를 조성하고 도내 관리기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조성안이 가장 적합하다.

Division	Korea Venture Investment	Independent operation			
	-	Use of private management company		Utilizing local institutions	
Creation Plan	Utilization of Korean venture investment	After forming its own fund, it is entrusted to a private management company.		After forming its own fund, a new management agency was established in the province.- High cost	After forming its own fund, a new management agency was established in the province.-Low cost
Representative case	Korea Fund of Funds	New Deal Fund/Innovation Growth Fund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Food Fund	Gyeongnam Youth Impact Investment Fund
Investment Management Agency	Korea Venture Investmen	Hanwha Asset Management (private)	Korea Growth Finance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and Finance Institute	Provincial management agency
Ground Law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66)	Capital Markets Act (Private Investment)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Investment Association Act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50)
Those who can inves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person who manages the fund	Professional investors under the State, Bank of Korea listed corporations, banks, etc.		Nationlocal GovernmentFund Management entity(Fund Management Plan Author)	Startup planner (accelerator)Small business start-up investmentKorea Venture InvestmentNew technology business financierLimited liability company, etc.
Scale of sub-fund creation (2021)	26.7 trillion	5.6 trillion	17.8 trillion	1.5 trillion	2 billion won
Number of operating sub-funds (2021)	794 (cumulative 1,035)	50 (41 corporate investment, 3 infrastructure, 6 projects)	226	94	1 single fund
Related ministries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Gyeongbuk Creative Economy Innovation Center, Gyeongbuk Economic Promotion Agency
Local government fund example	Chungcheong Regional Innovation Venture Fund	-		-	Busan Harmon Fund

Fig. 2. Gyeongbuk-style content fund creation plan.

5. 결론

존 호킨스(John Howkins)는 시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개방성, 공정성, 효율성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개방시장이란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하며, 공정시장은 모든 회사가 동등한 조건에서 아이디어의 장점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시장을 뜻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효율시장은 창조자가 구매자를 찾을 수 있고, 구매자도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시장[17]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지역형 콘텐츠 펀드는 콘텐츠 시장에서 개방성, 공정성,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형 콘텐츠 펀드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의 콘텐츠 시장에서 상용될 수 있는 모델 방안을 위해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제언을 하였다.

콘텐츠 시장과 현황 분석 결과, 글로벌 콘텐츠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콘텐츠 산업은 K-콘텐츠, 영상 콘텐츠 분야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콘텐츠 산업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경북도는 지역 내 콘텐츠 기업과 시장이 영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음악, 애니메이션 등 분야를 특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펀드 조성 and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서울 혁신 성장 펀드, 부산지역 혁신 벤처펀드, 경남 청년 임팩트 투자 펀드(하모펀드) 세 개의 지자체 정책 펀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역 수요기업의 확보가 필요하고 자생적인 모펀드 설립과 동시에 지역 진흥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공

공 VC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북형 콘텐츠 펀드 모델 개발 방안을 위한 당위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콘텐츠 산업의 영역이 확대 되고있는 추세에 따라, 경북형 콘텐츠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ICT와 결합된 기술집약형 콘텐츠(CPND)산업과 지역형 특산물 가공 라이선싱을 통한 콘텐츠 장르에 대한 기업이 포함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경북형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경북 내 성장 가능성이 존재하는 초기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민간 자금과의 매칭을 통한 펀드 조성, 펀드 지속성과 자생을 위한 수익률 설정을 고려한 모펀드 설립이 필요하다.

셋째, 콘텐츠 공공기관이 경상북도의 관련 근거법에 따라 경북 실정에 적합한 콘텐츠 펀드 유형을 개발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VC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남의 경우 20억 원대의 자펀드를 만들고, 그 운영을 담당할 도내 관리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방식으로 펀드 조성안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국내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경북형 콘텐츠 펀드 조성 방안을 통해 지역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펀드의 운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 콘텐츠 펀드의 규모와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References

- [1] H. S. Koh, M. N. Lee,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Wave Content Consumption Experience and National Perceptions in Asian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3, No.11, p.609, Nov. 2023.
DOI: <https://doi.org/10.5392/JKCA.2023.23.11.609>
- [2] Y. J. Kim, "Content Industry Support Fund in Digital Media Environment: Focusing on New Content Fund in Korea and Culture Tax in Franc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2, pp.146-159, Nov. 2023.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4.14.02.146>
- [3] J. I. Choi, K. Back, "Financial Ecosystem Development for Venture Capital Activation in Daejeo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3, No.6, pp.39-48, Dec. 2018.
- [4] J. J. An, Y. S. Jeon, Y. N. Ju, J. R. Choi, K. M. Kim, 2022 Overseas Content Market Analysis, Result Report, Trade Partners, Korea, pp.13-14.
- [5]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22 White Paper on Content Industry, Annual Repor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pp.93-98.
- [6] D. J. Park, 2022 Local Content Company Status and Creator Survey, Result Report, Metrics Inc., Korea, pp.3-15.
- [7] D. J. Park, 2022 Local Content Company Status and Creator Survey, Result Report, Metrics Inc., Korea, pp.94-95.
- [8] D. J. Park, 2022 Local Content Company Status and Creator Survey, Result Report, Metrics Inc., Korea, p.484.
- [9] Y. J. Park, M. H. Rim, P. S. Heo, B. T. Koo, The Convergence Trend and Case by Type in Contents Industry, Trend Analysis Report,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Korea, pp.172-186.
- [10] H. B. Yang, J. N. Park, "Analysis of Angel Investment Status and Development Task in South Korea", *Journal of SME Finance*, Vol.40, No.2, p.52, Jun. 2020.
DOI: <https://doi.org/10.33219/jsmf.2020.40.2.003>
- [11] M. H. Kim, H. J. Jeong, Y. S. Kwak "A Case Study for Linked Support for Startup Accelerating", *Journal of KIIT*, Vol.17, No.7, pp.103-109, Jul. 2019.
DOI: <http://dx.doi.org/10.14801/jkiit.2019.17.7.103>
- [12] J. H. Noh, "How to Promote ESG in Private Equity",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Vol.51, No.5, pp.543-569, Jan. 2022.
DOI: <https://doi.org/10.26845/KJFS.2022.10.51.5.543>
- [13] C. G. Lim, *A Signaling Process of Social Ventures to Attract Impact Investing*,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ungkonghoe University Department of Management of Co-operatives, Seoul, Korea, pp.1-10, 2022.
- [14] I. J. Ahn, "A Study of A Cultural Classification and A Culture Contents Industrial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7, No.2, pp.6-21, Dec. 2006.
DOI: <https://doi.org/10.14699/kbiblia.2006.17.2.005>
- [15] J. H. Sung, "A study on the CPND ecosystem of VR contents using cultural heritage : Focusing on the case of Okyeonjeongsa in Hahoe Village", *Humanities Contents*, Vol.67, pp.261-281, Dec. 2022.
DOI: <https://doi.org/10.18658/humancon.2022.12.261>
- [16] Y. M. Rim, J. M. Kim, M. I. Choi,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tatistical System for the Digital Contents Industry, Research results report, Software Policy Research Institute, Korea, p.6.
- [17] J. Hockin, *Creative Economy*, p.424, FKI media, 2013, pp.45-49.

성 증 현(Jong-hyun Sung)

[정회원]



- 2012년 8월 :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언론홍보 (석사)
- 2022년 8월 :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문학 박사)
- 2010년 3월 ~ 2012년 8월 : 안동 영상미디어센터 콘텐츠기획팀장
- 2012년 9월 ~ 2023년 9월 : 경북콘텐츠진흥원 전략기획팀장,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센터장.
- 2023년 9월 ~ 현재 : 국립안동대학교 미디어문화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콘텐츠 정책, 콘텐츠 산업, 지역 콘텐츠